

기획: 북한 사회주의 체제 형성기의 보건 의료사, 1955-1961 —

서문

김옥주⁺, 정준호⁺⁺

이 기획에 실린 네 편의 논문은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의 새로운 교육 과정인 “서울 2016 이종욱 교육 과정”의 산물이다. 2016년 전면 개편된 교육 과정에 의거해 2017년 본과 2학년 학생들이 처음으로 10주 간 집중적으로 교수의 지도를 받아 각자의 주제를 연구하는 의학 연구 과정이 시작되었다. 교수들이 현재 각 연구실에서 진행 중인 과제 중에서 학생 연구 주제를 선정하여 학교에 제출하면, 학생들이 그 중 마음에 드는 것을 신청하고, 최종적으로 의학 교육실에서 학생들을 교수들의 연구 주제에 배정하는 체계로 운영되었다.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인문의학교실에서는 “해방 후 남북 의학사 연구”로 주제를 제안하였고 2017년에는 특히 북한 보건 의료사 연구를 구상하였다. 1994년 인문의학교실의 전신인 의사학 교실이 복설된 이후 4대 주임 교수인 황상익 교수가 북한 의학사 관련 연구를 진행하였고, 김옥주 교수도 미국 국회도서관 아시아관 한국학 부문에서 복사해 온 북한 보건 의료 잡지들을 활용한 연구를 수행하였다. 그 외에도 교실에는 그간 꾸준히 수집한 북한 의학 관련 서적들과 학술 잡지 등이 다수 확보되어 있어 이를 활용한 연구가 진행되었다.

서울 의대의 의학 연구 과정은 학생들이 10주 간의 연구 수행을 통해 독창적인 연구 결과를 내는 것이 그 목표였다. 2017년 10월 북한 의학사 연구 과정에 신청하여 배정된 네 명의 본과 2학년 학생들은 다른 의대생들에 비해 인문학적

⁺ 서울대학교, okim9646@snu.ac.kr

⁺⁺ 서울대학교, parasite@snu.ac.kr

소양이 높은 학생들이었으나, 단 10주 간의 연구를 통해 북한 보건 의료사에 대해 각자 독창적인 연구를 수행할 수 있게 하는 일은 쉽지 않았다. 학생들이 연구 과정을 시작하기 전에 김옥주 교수와 정준호 조교는 1차 사료와 2차 문헌에 대한 검토와 자료 조사를 마치고, 1956부터 1961년까지 북한 사회주의 형성기의 북한 보건 의료사를 네 명의 학생들이 서로 도움을 주고받으면서 각자 연구할 수 있는 네 가지 주제를 도출하였다. 배경 지식이 없는 의대 학생들이 북한 의학사 연구에 필요한 북한 역사 일반에 대한 학습을 어떻게 진행할 것인지에 대해 북한 과학사를 전공하고 북한학 개론 강좌의 교육 경험이 있는 강호제 박사가 큰 도움을 주었다. 첫 두 주에 걸쳐서 이 시기의 북한사에 대한 서동만, 이태섭, 강호제의 연구서들을 집중적으로 읽었다.¹ 학생들의 북한사에 대한 지식이 정리될 무렵 강호제 박사가 직접 학생들의 세미나를 지도하였다. 서울 의대 통일 의학 연구소장 신희영 교수는 학생들에게 현재 북한 의료의 현황과 통일 의학의 내용을 강의하고 관련 자료들을 제공하였다.

북한 역사 개론과 역사 연구 방법론에 대한 교육 과정을 마친 뒤 학생들에게 네 가지 주제를 제시하고 스스로 주제를 선택하도록 하였다. 주제를 선택한 학생들은 인문의학교실에 쌓여 있는 북한 의학사 사료들을 읽고 연구 노트를 작성하도록 하였으며, 매주 모여 연구 진행 사항을 발표하였다. 네 명의 연구 주제가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으므로, 서로의 연구 내용을 함께 검토하고 토론하는 일은 각자의 연구에도 도움이 되었다. 정준호 조교가 통일부 북한 자료 센터와 서울의대 통일 의학 연구소 등에서 학생들이 주제별로 필요한 사료들을 찾는 과정을 지도하였고, 학생들은 각자 주제에 필요한 자료 조사를 수행하였다. 연구 중간 단계부터는 학생들이 자신들의 연구 결과를 써 와서 함께 읽고 검토하는 방식으로 연구가 진행되었다. 교수와 함께 하는 공식적인 연구 논문 세미나 이외에도 정준호 조교는 개별 학생의 연구에 대해 수시로 사료 검토와 논문 글쓰기 지도를 하였다. 최종적으로 학생들은 네 가지 주제에 대한 자신의 연구 결과에 대해 본과 2학년 학생들과 채점 교수들 앞에서 포스터 발표를 하였고, 이후 논문으로 작성, 제출되어 서울의대 의학 연구 위원회에서 모두 좋은 평가를 받았다.

학생들이 논문의 형식으로 제출한 연구 결과는 2017년 겨울 방학과 2018년

¹ 서동만, 『북조선 사회주의 체제 성립사 (1945-1961)』 (선인, 2005); 이태섭, 『김일성 리더십 연구』 (들녘, 2001); 강호제, 『북한 과학기술 형성사 I』 (선인, 2008).

초 사이에 학술지에 제출할 만한 논문으로 만드는 작업을 거쳤다. 이는 쉬운 과정이 아니었다. 연구 과정 동안 학생들이 학술 논문에 요구되는 형식으로 사료를 소화하고 자신들의 주장을 전개하여 글을 쓰는 과정을 거쳤지만, 이를 동료 심사를 거쳐 학문 공동체에 기여할 만한 논문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상당한 시간을 들여 1차 사료와 연구 문헌들을 다시 검토하고, 논지를 다듬어 개정하고, 부족한 부분을 새로 쓰는 작업을 해야 했다. 이 작업을 정준호 조교가 중심이 되어 진행하였다. 윤연하, 광희환, 고요한 학생들이 작업한 세 편의 논문은 학생들이 제출한 초고를 상당 부분 반영할 수 있었으므로, 이 세 사람이 논문의 제일 저자가 되었다.² 그러나 김민규의 주제인 “붉은 보건 전사 만들기: 북한 보건 의료 부문의 사상 투쟁”은 다루어야 할 내용이 광범위하여, 학생의 연구에만 입각해서는 논문을 구성할 수가 없었다. 김민규가 제출한 논문 원고는 이 시기의 사상 투쟁이 의사, 한의사, 약제사, 의과대학생 등 보건 의료인의 직종에 따라 다른 내용으로 진행되었다는 의미 있는 통찰을 담고 있었으나, 북한 보건 의료인의 정체성이 북한의 사회 정치적 변동 가운데 일련의 사상 투쟁 속에서 형성되어가는 과정을 보이기 위해서는 학생이 10주에 다룰 수 있는 범위 이상의 사료 검토와 연구가 필요했다. 따라서 이 논문은 정준호 조교와 김옥주 교수가 새로 하다시피 연구를 진행하였다.³

이 기획 연구의 특징은 무엇인가? 무엇보다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진행한 연구라는 점이다. 현재 남한의 30대 박사 과정의 조교, 50대 교수가 함께 연구를 기획하고 준비하여 20대인 서울의대 학생들과 연구를 공동으로 진행하였다. 학생들 중에는 군 위탁생으로 학업을 수행한 군 장교가 두 명 있었는데, 이들은 의대를 마치고 군의관이 될 사람들로서 통일 시대의 군의관으로 활동할 비전 하에 북한의 보건 의료사에 대한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이 연구 과정에 임했다. 여러 세대의 사람들이, 또 민간인과 군인들이 한 자리에서 북한 보건 의료사 연구를 진행하면서 서로의 생각을 나눈 경험은 매우 도전적이면서도 흥미로웠다. 또한 이 연구가 시작되어 출간될 만한 논문으로 나오게 될 때까지 서울의대의

2 고요한·김옥주·정준호, “북한 천리마 운동과 보건 의료 인력의 동원, 1956-1961”; 윤연하·김옥주·정준호, “사회주의적 삶으로서의 위생: 1950년대 후반 북한에서의 위생 문화 사업을 통한 대중 개조”; 광희환·김옥주·정준호, “생태계의 사회주의적 개조: 북한의 폐흡충 박멸 사업, 1955-1961”.

3 정준호·김민규·김옥주, “붉은 보건 전사 만들기: 북한 보건 의료 부문의 사상 투쟁, 1956-1961”.

의학 연구 교육 과정 위원회, 『한국과학사학회지』의 편집진, 동료 심사자 전문가들이 함께 기여하였다. 북한 연구자들의 선행 연구와 북한 사료의 확보를 가능하게 한 미국 국회도서관 소냐 리(Sonya S. Lee) 여사의 도움도 이 연구에 크게 기여했다. 북한의 1차 사료에서 반복적으로 비판하는 이기주의와 개인주의가 만연한 남한 자본주의 사회이지만, 개인의 이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학문 공동체의 일원으로 이 연구에 상당한 시간을 들여 수 차례의 동료 평가를 통해 논문의 질을 높이는 데 기여한 익명의 심사자들께도 감사드린다.

둘째, 이 기획 연구는 기존 북한 의학사 연구의 범위를 확대하였다. 2000년대까지 북한 사회주의 체제 형성기의 보건 의료사 연구는 사료의 부족으로 주로 제도사에만 제한되어 이루어져 왔다. 김옥주가 1999년 미국 국회도서관에서 수집해 온 북한 보건 의료 관련 사료를 2002년 “북한 의학 잡지 연구”에서 소개한 바 있으나, 역시 피상적인 검토에 국한되었다.⁴ 그러나 이후 서동만, 이태섭, 김근배, 강호제, 신효숙 등의 연구자들에 의해 북한 역사에 대한 연구가 많이 이루어져 사회 전 부문의 일관성과 일사불란함을 특징으로 하는 북한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적 배경을 포괄적으로 이해하는 데 크게 기여하였다. 노동당 중앙위원회 상무위원회나 중앙당 전원회의의 결정, 김일성의 교시, 당 중앙위 붉은 편지 등이 사회 각 분야에 적용되는 과정을, 정치, 노동, 산업, 과학기술 분야에서 살펴본 선행 연구들은 2014년 새로 확보한 『인민 보건』과 『조선 의학』 등 보건 의료 분야의 사료들을 해석하는 데 결정적인 도움이 되었다. 특히 어려운 시기에 북한 사회주의 체제 형성에 대한 연구를 수행한 서동만의 연구와 그 선구자적인 정신은 이 연구 도중 내내 힘이 되고 빛이 되었다.

이 연구 과정 중 가장 인상적이었던 순간은 천리마 운동, 북한 보건 의료계 사상 투쟁, 위생 문화 운동, 디스토마 퇴치 사업 등 각자의 주제에 대해 서울의대에서 학생들이 “그대는 천리마를 탔는가?”라는 북한의 선전 그림을 전면에 내걸고 포스터 발표를 할 때였다. 이 발표들을 보면서 한 의대 교수는 “본과 2학년 의학 연구 발표장이 서울의대와 평양의대가 같이 발표하는 것 같다”라고 언급하였다. 한국 전쟁 동안 여러 교수들이 북으로 가게 되어 어느 곳보다 냉전의 상흔이 깊은 곳이 바로 서울의대였다. 김시창 박사의 아들 김정대 선생은 서울 의대 교수들이 외국 학회에서 김시창 선생에 대한 소식을 듣고 그 가족에게 알

4 김옥주, “북한 의학 잡지 연구: 1950년대 『인민 보건』을 중심으로”, 『의사학』 11:2 (2002), 165-185.

려주었다가 중앙정보부에 가서 곤욕을 치른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또한 한국 근현대사의 남북한 과학자들에 대해 꾸준히 연구해 온 전북대학교 김근배 교수가 북으로 가게 된 서울의대 교수들을 추적하기 위해 1980년대 말 1990년대 초 서울의대 교수들을 인터뷰하려 했을 때 어느 누구도 이에 대해 언급하려고 하지 않았었다. 이렇듯 냉전의 기류가 팽배했던 서울의대 연건 캠퍼스에서 2017년 학생들에 의해 북한 의학에 대한 연구와 발표가 이루어진 것이다. 이제 냉전 시대의 기류는 사라지고 새로운 세대에 의해 새로운 미래가 시작되는 상징으로 느껴졌다. 캠퍼스에서 벌써 통일의 기운이 느껴지는 듯했다.

본 기획은 북한 사회주의 체제 성립 시기의 보건 의료사를 다루는 총 네 편의 논문으로 구성되어 있다. 북한의 인텔리 정책을 통해 보건 의료 인력, 즉 보건 일꾼들의 정체성이 변화해가는 과정을 다룬 “붉은 보건 전사 만들기: 북한 보건 의료 부분의 사상 투쟁, 1956-1961”을 첫 번째로 배치하였다. 1956년 북한의 종파 투쟁 이후 사회 전 분야에서 진행된 사상 투쟁을 통해 전문성을 갖춘 오랜 인텔리들이 철저히 사상성에 입각한 새로운 붉은 보건 인텔리로 대체되면서, 오늘날 북한 보건 의료 인력에서도 찾아볼 수 있는 핵심 의료 윤리 및 의료인의 사회문화적 정체성이 형성되었음을 짚어 보았다. 보건 의료 분야의 고유한 요소들을 지니고 진행된 이러한 사상 투쟁의 흐름은 천리마 운동과 천리마 작업반 운동으로 사회주의 대 고조기라 불리는 이 시기에 진행된 보건 의료 인력의 생산 부문 동원, 위생 문화 사업, 전염성 질환 관리 사업 등에서 보건 의료 인력의 역할과 활동을 이해하는 배경을 제공하기도 한다. 바로 이러한 측면들을 본 특집호의 후속 논문들이 다룬다.

“붉은 보건 전사 만들기”에서 보건 의료 부분의 사상과 도덕의 측면에서 이루어진 인간 개조 과정에 대해 다루었다면, 두 번째 논문인 “북한 천리마 운동과 보건 의료 인력의 동원, 1956-1961”에서는 북한의 전 부문이 천리마 운동에 동원되어 생산 현장에 밀착해 노동력 손실을 최소화하는 임무를 담당하게 되는 과정을 다루고 있다. 주변적 위치에 머물렀던 보건 의료는 천리마 운동 시기 노동 및 생산과 밀접한 연관을 맺으며 노동 현장의 필수적인 요소 중 하나로 자리 잡았다. 이렇듯 생산 현장으로 동원된 보건 일꾼들이 기술 혁신과 질적 향상을 통해 무상 치료제, 의사 담당 구역제 등 사회주의적 북한 보건 의료의 물적 기반을 만들어가는 과정을 살핀다.

세 번째 논문인 “사회주의적 생활 양식으로서의 위생: 1950년대 후반 북한에

서의 위생 문화 사업을 통한 대중 개조”에서는 보건 의료 부문이 생산 현장을 넘어 일상 전반에 확산되어 사상성과 사회주의 체제에 걸맞은 생활 양식으로 대중을 개조해나가는 과정을 다루고 있다. 북한에서 위생은 단순히 질병을 예방하고 건강한 삶을 영위하는 기초라는 개념을 넘어, 사회주의적이며 근대적인 생활 양식을 영위하는 광범위한 문화 운동의 일환으로 시행되었다. 이를 통해 생산의 예비로서 남아 있던 학생과 여성의 일상이 사회주의적 생산 관계에 편입되고, 나아가 북한의 국가 권력이 위생을 매개로 대중의 일상으로 침투해 대중적인 인간 개조 운동이 전개되어 나가는 모습을 살피고 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 논문인 “생태계의 사회주의적 개조: 북한의 폐흡충 박멸 사업, 1955-1961”에서는 북한의 폐흡충 박멸 사업의 사례를 통해 사상 투쟁, 그리고 위생 문화 사업을 통해 대대적으로 동원된 보건 의료 인력과 대중들이 생산 현장이나 일상 생활을 넘어 자신들의 삶의 물질적 기반을 이루는 생태계 전반을 사회주의적으로 개조하려는 시도가 이루어졌음을 살핀다. 인간이라는 숙주부터 다슬기, 가재와 같은 중간 숙주, 오염원이 될 수 있는 생활 환경 등 감염 위험을 안고 있는 모든 고리를 한꺼번에 말소한다는 “데바쓰따찌야” 개념을 기반으로 이루어진 북한의 폐흡충 박멸 사업은 앞서 다루어진 사회주의 체제 형성기 북한 보건 의료 사업을 종합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이 연구가 진행된 직후인 2018년 남북 정상회담이 열려 남북한 정상이 서로의 땅을 밟고, 곧이어 북미 정상회담이 이루어지면서 2017년과 비교하여 남북 관계는 빠르게 변화해 왔다. 정상회담 이후 가장 먼저 남북 협력이 논의된 분야 중 하나가 바로 보건 의료 협력 부문이었다. 본격적인 인적 교류나 북한의 사회 기반 시설 확충이 이루어지기 위한 선행 조건으로 전염병 관리와 같은 보건 의료 분야의 공동 대응이 우선되어야 한다는 공통의 이해가 있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 기획에서 다루고 있다시피 분단 체제 이후 불과 15년 여 만에 남한과 북한의 보건 의료는 그 기본 개념, 인력, 사업 등의 모든 면에서 매우 다른 형태로 발전되었다. 과거 급변하는 정세 속에서 북한의 보건 의료 제도 및 인력이 형성된 과정과 그 특성을 이해하는 것은 향후 남북 보건 의료 협력을 통해 “한반도 건강 공동체”를 만들어나가는 과정에서 서로의 차이를 이해하고 극복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나아가 보건 의료라는 주제를 통해 바라본 북한의 체제 형성 과정이 현재 북한의 모습을 보다 포괄적으로 이해하는 데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한다.